

2004년도 제3차 아프리카경제연구회 결과보고

1. 개요

- 일시: 2004년 11월 11일(목요일) 오후 4시 30분~6시 10분
-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서관 105호실
- 참석자: 심의섭(명지대 교수), 최동주(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우영환(단국대 교수), 신원용(영산대 교수), 김종현(해건 부장), 허경신(해건 과장), 주동주(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상현(외대 교수), 장용규(외대 교수), 숙대 및 한국외대 아프리카 전공 대학원생 등 모두 25명.
- 특기사항: 금번 아프리카경제연구회에는 숙명여자대학교 및 한국외대 아프리카 전공 대학원생들도 10여명이 참여, 아프리카 지역연구(특히 경제 분야 및 연구방법 접근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음.
- 발표자:
 -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최동주 교수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박영호 전문연구원
- 발표주제
 - 탈냉전 시대의 아프리카 지역학: 수단 분쟁 연구의 분석수준 변환 모색(최동주)
 - 아프리카 거점국가 개발 및 활용방안: FTA를 중심으로(박영호)

2. 발표내용 요약

가. 탈냉전시대의 아프리카 지역학: 수단분쟁 연구의 분석수준 변환 모색

□ 전통적으로 지역학(area study)은 다양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세부학문 분야간의 일대일 연계(interdisciplinary) 연구를 지향하면서 연구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해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학 분야에서 모든 인문사회과학 세부학문의 통합적 접목연구(transdisciplinary)를 통해 특정 연구분야의 경쟁력을 배가하고 있음.

□ 본 논문은 아프리카 내전 연구에 있어서 인류생존을 위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기초자원인 수자원을 둘러싼 대내외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단의 분쟁을 재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물의 위기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려면 물 공급이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늘 수 없는 곳, 물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곳, 상호경쟁적인 물 사용처가 상충되고 있는 곳 등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

- 수자원이 부족한 동시에, 국가 간에 수자원이 공유되어야 하는 경우, 수자원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하여 국가간의 분쟁을 유발할 소지를 가지고 있음.

- 인접국과 수자원을 공유하면서 그 공유수량에 절대적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며 수단과 이집트는 그 상황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함.

□ UNEP는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전 세계 아동의 수는 매년 4백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음. 물이 없어서 사망하는 5세 미만 영아는 매일 5천 명, 매년 200만 명에 이룸.

- 이들 아동 중 85퍼센트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함. 최근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유형별로 분석할 경우 가뭄과 그로 인한 기근피해가 가장

심각했는데, 아프리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의 82퍼센트가 가뭄관련인 것으로 보고 되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물 부족을 겪게 될 국가가 2025년에는 현재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점임.

- 이러한 예측은 가장 큰 수원인 나일의 유량 감소와 연간 3퍼센트가 넘는 인구증가율에 그 배경을 두고 있음.

-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물 기근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 등 나일 유역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수자원 보유 상태는 양호한 편임. 문제는 국가 내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정책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특이한 사례로 분류됨.

- 그러한 정책의 배경은 지리적,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동시에 복잡하게 안고 있는 수단의 고유한 국가적 배경에 근거함.

□ 인간안보(human security) 문제는 냉전 기간동안 국제정치의 주요 연구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채 이른바 '하위정치'(low politics)의 수준에 머물러 왔음.

- 그러나 냉전종식과 함께 지구적 차원의 파급효과를 수반하는 생태계 문제와 이로 인한 인류 존속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음.

- 생태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간안보의 담보는 긴밀한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기능을 그 전제로 함.

- 인간안보의 문제는 주권국가로 구성되었고, 국제사회의 계층별 구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최근의 국제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고도의 협력과 정책조화의 필요성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 지역학 분석대상 및 수준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연구영역과 쟁점들과 이에 적절한 분석 수준과 단위의 선정을 위한 접근방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이해는 현실주의 국제관계 접근론에 대한 비판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설명은 사회현상을 보는 시각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성격에 기반함.

- 특히 안보개념의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인간안보, 포괄안보 등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하나의 연구단위로서 국제기구와 INGOs와 갖는 연관성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함.

□ 인권문제는 인간안보의 제반 분야에 연결되는 핵심적인 연구분야이므로 국제사회의 계층별, 발전단계별, 지역별 접근의 차이와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수단은 이른바 “끝이 안 보이는 내전”에 시달려 온 나라임.

- 4천만 명이 채 안되는 인구를 지닌 이 나라는 독립 이후 지난 40여년 간 내전에 신음하면서 약 4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고 2백만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내전으로 인한 질병 등으로 사망했음.

□ 수단은 56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 종족 국가이고 크게는 아프리카의 전통문화와 정서를 이어 온 남부 수단과 아랍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른바 아프로-아랍권의 북부 수단으로 분류됨.

- 지금의 내전은 1983년에 북 수단에 근거한 현 정부가 샤리아 법을 국가법으로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지만, 영토 내부의 종족 간 분쟁은 5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

- 현재 내전 해결의 관건은 국가 내부의 대표적 인구집단인 아랍인과 남부의 기독교 아프리카인, 그리고 동부와 서부의 비 아랍 권 세력 간의 경쟁적 갈등 해결임.

- 이 세 집단은 같은 목적으로 정치 외교적 이득을 우선 득하려고 하

는 경쟁을 하고 있고, 동시에 군사능력의 강화도 외부세력과의 연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음.

- 남과 북 평화협상의 주요 쟁점은 남북간의 국경 반환의 경계점, 종교적 자유에 대한 합의 여부, 과도정부 유지 기간에 대한 이견, 연방제의 세부적 성격과 자원의 배분 등임.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들은 현 정부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문제는 남과 북의 내전 당사자들이 모두 극심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공포정치와, 폭력, 그리고 식량공급과 기아를 내전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임.
 - 그 결과 현재 약 260만 명의 수단 인이 비상수단을 통한 식량공급이 필요한 상태이며, 아동의 3분의 1이 영양실조 상태임.
 - 1990년 세계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북수단의 경우 인구의 2분의 1이 기아상태에 있으며, 1980년대 중반의 기근으로 인해 약 2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음.
 - 1980년대 중반의 심각한 기근은 곡물가의 급상승을 초래했고, 내부시장 우호적이라기보다는 교역중심의 식량 공급체계는 식량문제의 악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따라서 현재 수단의 분쟁과 기아는 물리적 형태의 내전, 식량위기, 생태계의 붕괴 등과 같은 혼합적이고 복합적인 배경요인의 산물인 것임.
- 탈냉전 시대 지역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간안보와 INGOs의 학술적 연관성을 토대로 한 새로운 아프리카 지역학 교육과정의 창출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첫째, 과거의 횡적인 학문적 결합이 본 교육과정에서는 횡과 종의 방향, 즉 관련 사회과학 뿐 아니라 관련 자연과학 분야와의 자연스런 결합과 협력(Cross-disciplinary)을 요구하고 있음.

- 둘째, 따라서 안보에 대한 기존의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 인간개발과 생존 중심의 문제를 축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함.

- 셋째, 다자간 협력, 즉 주권국가간의 이익조정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기구연구 방향의 수정이 요구됨.

□ 특정지역이나 국가의 내전에 대한 연구는 정치사회적, 경제적, 인종 문화적 차원의 접근을 근간으로 삼아왔음.

- 특히 저개발지역인 아프리카나 정서적으로 원리주의자로 분리되는 중동지역의 경우 '예외주의'(exceptionalism)라는 문화적 절대성 혹은 우월성이 연구자의 보편적 관점을 방해하는 경향이 많았음.

- 그러나 이미 많은 국제분쟁이 특정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간 혹은 지역간의 경쟁구도에서 유발하는 사례를 우리는 경험했음. 중동 분쟁이 원유와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진실에 대한 검증은 이미 보편적 인정을 받고 있음.

□ 또한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저조한 저개발국들의 지속적인 분쟁발발과 심화의 배경은 종교와 인종이라는 대칭적 구도의 설정이 가능한 개념들을 위주로 분석되어 왔음.

- 이러한 경향도 국제분쟁 연구의 지난 경향과 그 궤를 같이함. 그러나 정치, 종교, 인종적 차원의 거시적 배경과 더불어 분석수준을 한 단계 낮추어 미시적 접근을 연구과정에 도입할 경우, 저개발국 내전에 대한 연구물의 성과는 배가될 수 있음.

□ 수단 내전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요인과 현상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줌.

- 내전 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다름 아닌 수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둘러싼 세력 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것

을 본 연구는 밝히고 있음.

- 수단 내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이집트의 정책기저도 다른 나일 수량의 독점적 확보와 유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특정 생태환경과 자원에 대한 경쟁구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간 혹은 내부 세력 간 갈등의 지속은 환경의 결핍이나 자원의 고갈상태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기존 환경과 자원의 공유와 효율적 관리체계의 선행에 있다는 평범한 지식을 수단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음.

나. 아프리카 거점국가 개발 및 활용방안: FTA를 중심으로

□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 경제규모, 경제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아프리카시장을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각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에서 시장성이 큰 국가는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모로코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아프리카 5대 경제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들 국가들은 아프리카 전체수입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신장률에서도 알제리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제국 가운데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또한 이들 국가들은 해당권역내에서 물류 및 경제적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동부아프리카협력체(EAC) 등 지역통합체를 사실상 주도해 나가고 있어 자체시장은 물론 인근지역으로의 진출거점 또는 지역본부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시장임.

□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부국 남아공은 자체시장성은 물론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 및 핵심적 물류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남아공은 또한 SADC 등과 같은 역내 경제통합을 사실상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역내간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아프리카 시장진출의 거점기지로도 활용가치도 높음.

□ 북부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이집트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역내경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수출거점기지로 활용할 가치가 높음.

- 이집트는 900억 달러의 GDP규모로 남아공에 이어 아프리카 제2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구매력(1인당 GDP: 11,400억 달러)에서도 아프리카 전체평균(677달러)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인구규모면에서도 나이지리아(1억 2,400만명)에 이어 아프리카 제2위의 인구대국으로 최근 몇 년간 5%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이집트의 수입시장 규모는 무역자유화 진전에 따른 관세인하와 수입금지 품목의 축소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더욱이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경우 수출확대의 가능성이 높은 대형시장임.

□ 모로코와 알제리는 북부 아프리카지역에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모로코는 아프리카대륙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정치·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간 수입규모는 100억 달러 수준으로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수입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부존자원이 없어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지만 2,80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소비시장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혁·개방화로 수입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잠재적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알제리는 남아공, 이집트에 이어 아프리카 3대 경제대국으로, 시장규모(GDP)와 인구규모(3,000만)면에서 마그레브지역 가운데 가장 큰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석유자원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낙후성,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에 의한 사회폭력사태와 정치적 불안, 부정부패 등이 경제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원유 및 천연가스 등 광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저 소득수준의 신흥유망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음.
 - WTO 미가입국인 알제리는 아직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제전환국이나, 지속적인 공업화정책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수출유망 대상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아프리카대륙의 최대 인구대국(1억 1,000만)으로 경제규모면에서도 남아공에 이어 제2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내수시장은 물론 인근 서부아프리카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시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음.
-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4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빈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1999년 5월 민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화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기대되고 있는 시장임.
- 아프리카국가들은 EU와 로메협정, 협력협정 등을 통해 각종 특혜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EU시장 진출거점으로서 활용여지가 높음.
- 아프리카지역 가운데 특히, 마그레브는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EU와 공산품의 관세면제 등 무역특혜조치를 포함한 협력협정을 맺고 있음.

- 양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밀접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EU시장이 마그레브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수출시장으로서 또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재의 수입선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여건은 우리의 대 EU 수출확대를 위한 우회수출기지로써 마그레브지역이 유리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유럽시장에의 접근 용이성에 비추어 볼 때 마그레브에 대한 시장확대는 마그레브 역내시장 보다는 EU에 대한 우회수출을 겨냥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접해 있는 모로코는 유럽과 북부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대륙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정치·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유망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모로코시장에 대한 진출강화는 모로코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알제리, 튀니지 등 인근 마그레브지역은 물론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아프리카는 시장으로서의 많은 제약요인과 그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한국의 시장진출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인 요인 이외에도 우리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우리의 이니셔티브 부족도 아프리카 시장진출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 아프리카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FTA 등 시장진출 노력을 기울일 경우 볼 때 시장 확대가 가능한 미개척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시장 다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국가와 같은 미개척 지역과의 FTA 체결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나아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시장진출에 있어서도 아프리카를 전략적 거점시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

- 아프리카는 미국과 EU의 경제적 특혜조치로 인하여 유럽과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임.

□ 시장의 안정성 및 전략적 가치 등 제반 경제적 요인을 감안할 때 FTA 우선대상국으로는 모로코를 들 수 있음.

- 모로코는 유럽과 중동을 잇는 전략적 시장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신흥시장임. 또한 모로코는 이스라엘 문제나 이란, 이라크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이점도 있음.

- 더욱이 모로코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유럽지역과 특별한 역사적·지리적 관계에 기초하여 특혜관세협정 등 밀접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FTA 체결시 한국상품의 EU시장 접근도 용이하게 됨.

- 모로코와 EU간의 협력협정이 2000년 3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됨으로써, 향후 12년간 공산품의 단계적 관세인하 과정을 거쳐 2012년에는 양 지역간 FTA가 탄생하게 됨.

- 모로코는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유럽국가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모로코시장 진출강화는 마그레브지역은 물론 주변 아랍지역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한국과 모로코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FTA 체결시

한국의 수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즉, 모로코의 주력 수입상품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철강, 자동차, 컴퓨터 등 정보통신 관련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모로코정부의 정보통신 육성정책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통신 관련제품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FTA 수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모로코와 우리의 교역은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일차산품을 수입하는 남북교역의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모로코는 제조업 발전단계가 낮아 전반적으로 우리와 경합관계에 놓일 만한 상품은 없음.

□ 모로코는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단기적으로 우리의 수출이 일정규모 이상 확대되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장임. 그러나 상당한 인구를 지니고 있고 무역규모가 비교적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공업화도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모로코는 EU와의 경제적 특수관계,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의 직접투자를 통한 유럽 우회수출기지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요건을 지니고 있음.

- 더욱이 모로코는 아-중동국가들 중에서 기후와 자연조건이 양호하고 문화도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어 우리기업들이 아-중동지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도 덜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미개척 신흥시장인 모로코를 우리의 협력파트너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향후 FTA 등 협력확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것임.

3. 토론내용

가. 탈냉전시대의 아프리카 지역학: 수단분쟁 연구의 분석수준 변환 모색

□ 과거에는 “Balance of Power(힘의 균형)”가 국제사회를 관리하는 행위주체가 될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힘(군사력 등)의 논리보다는 “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이 국제사회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행위주체로 자리 잡고 있음.

□ 개도국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있어 특정지역에만 매몰된 연구방법으로는 다차원적인 연구가 불가능함.

- 예컨대, 지역 분쟁문제를 분류명함에 있어 지역적 문제에만 너무 매달려 현상을 규명하려 한다면, 이는 마치 일부인 ‘나무’만 보고 전체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음.

- 이는 결국 현상규명에 대한 설명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중요한 것은 현상 자체보다는 현상을 지배하는 구조논리에 대한 접근임. 즉, 어느 현상과 관련된 역사, 사회, 문화 등 종합적 역학관계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갖는 수단의 면적은 자그마치 2억 5천만 헥타르임.

- 북쪽으로는 이집트와 리비아, 동쪽으로는 에리테리아와 에티오피아, 서쪽으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쪽으로는 케냐와 우간다 등 7개국과 접해있음.

- 수단은 종교와 인종의 다양성이 있는 반면, 비교적 비옥한 땅과 농산물 생산기반 그리고 정치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정 반대임. 정치경제적 열악성은 자원과 관계된 뿌리 깊은 사회갈등에 근거하고 있음.

□ 남부 수단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언어와 종교가 일체감을 갖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자본과 연결되어 있는 북부수단에 의해 침탈당하고 착취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북부는 사회 통제력이 강한 중앙집권형인 반면, 남부는 분권화되어 있음. 그러나 이런 구분은 아랍과 아프리카,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대칭관계를 틀로 하는 수단 갈등 연구의 전형적 구분임. 이분법적인 연구 틀보다는 거시적 차원의 기존 틀과 하향 세부화 된 미시적 차원 분석수준의 조화를 염두에 둔 좀더 실용적인 연구 접근의 방향이 필요함.

□ 지구는 13억 8천 5백만km³의 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인간생활에 활용되는 민물의 양은 48만km³에 불과함.

- 이 2퍼센트의 물 가운데 21퍼센트가 아시아, 26퍼센트가 북미주, 28%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음.

- 전문가들의 계산으로는 육지에 내리는 비의 양은 매년 12만 km³로 얼음을 제외한 전체 민물량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함.

- 민물의 4분의 1 정도가 매년 새 물로 바뀌어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임.

□ 유엔 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수준이지만 세계인구가 77-112억 명이 될 금세기 중반에는 20억-70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 이에 국제기관이나 단체들은 '물 부족에 따른 인류의 재앙'을 경고하고 있음. 2001년 유엔산하 국제기후변화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2001'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지구는 고온, 가뭄, 홍수 등의 이상 기후와 인구증가로 극심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했음.

- 세계은행도 "20세기에 석유가 국가간 분쟁의 원인이었다면 21세기에

는 물이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여러 나라를 걸쳐 흐르는 ‘다국적 강’은 전세계에 214개에 달하고 세계인구의 40퍼센트가 인접국의 물에 의존하고 있어 물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음.

-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은 공개적으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인접국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유엔도 수리권(水利權)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간 분쟁을 긴급한 국제 이슈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간 대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임.

□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기반이 농업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해답은 개방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기저의 농업시장 개방압력 하에서도 생존력을 지닐 수 있는 대안에서 찾아야 함.

□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부족은 심각함.

- 미국의 세계 물 정책 연구소 소장은 “20세기가 석유확보를 위한 석유전쟁이라고 했다면 21세기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 세계는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로 물 부족, 나아가서 수자원을 둘러싼 물 분쟁의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음.

- 수자원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강은 요르단 강, 나일 강, 다뉴브 강, 갠지스 강 등이며,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면서 메콩 강의 개발에 따른 물 분쟁의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식민통치 이전의 시기부터 수단은 여느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외부 세력의 착취의 대상이었음.

- 외부세력은 서구 뿐 아니라 서아시아와 다른 동쪽의 아랍 국가들을 포함함. 외부침탈의 대상은 천연자원인 상아, 금, 티베가 주를 이루었고, 북아프리카 노예수출의 기지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인적자원의 외부유출이 많았던 국가임.

나. 아프리카 거점국가 개발 및 활용방안: FTA를 중심으로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번복할 수 없는 대세임.

- 이러한 현상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시장통합 시스템의 구축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지역무역협정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

- 1995년 WTO 발족 이후 경제통합은 FTA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2003년 10월 말 현재 발효 중인 215개 지역무역협정 중 FTA가 70%를 차지함.

□ 이러한 점에 본다면 아프리카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지금부터라도 FTA 체결예상에 따른 연구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편파적인 인식인데 이는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의 오류일 수도 있어 언론이나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이웃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는 각종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와 교역 및 투자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얼마 전에 개최된 일본-아프리카 경제포럼은 일본이 아프리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음.

- 아프리카는 그 동안 개도국의 변방 또는 주변국에 머물러 경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임. 하지만, 세계경제가 빠르게 통

합화되면서 아프리카도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더욱이, 아프리카에는 각종 자연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 우리와의 경제적 관계 형성이 중요함.

□ 최근의 아프리카 교역패턴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됨.

- 그 동안은 역사적, 지리적 특성에 연유하여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역구조는 과거 식민종주국인 유럽지역에 매우 편중된 특성을 지녀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와의 교역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음.

- 여기에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수입수요 확대(특히 원자재) 측면에 강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석유의 경우 리비아, 알제리 등은 물론이고 서부 아프리카 기네아만을 중심으로 한 나이지리아, 콩고, 적도기네 등이 새로운 산유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예컨대, 미국의 경우 9.11 테러사태 이후 원유 다변화 차원에서 서부 아프리카를 전략적 지역으로 판단, 석유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임.

-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원유도입의 다변화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서부아프리카 지역을 적극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지역이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낙관적인 성장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이 정도의 경제적 성과로는 아프리카경제가 낙후된 경제구조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성장을 이룩하기에는 역부족임.

- 더욱이 이러한 성장세가 대외경제요인의 일시적인 변화 즉, 주력수출

상품인 1차상품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다는 구조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아프리카국가들 가운데 일부 소수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장기간의 침체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고, 더욱이 과거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개혁·개방화를 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아프리카도 여타 개도권경제에 버금가는 성장세를 이룩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음.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FTA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아프리카정책에 있어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통상정책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FTA를 통한 통상전략의 다층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는 비록 그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구매력이 낮아 아직까지는 한국 상품들의 진출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여타 개도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진출여건이 나쁘지 않은 미개척 시장이라 할 수 있음.

- 더욱이 신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의 다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아프리카는 결국 소홀히 해서는 안될 소중한 잠재적 시장임.

-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FTA 등 통상전략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진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아프리카대륙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아프리카연합(AU)의 실체가

가시화됨에 따라 아프리카도 거대 지역공동체 결성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

- 이는 그 동안 아프리카국가들이 주창해 온 정치적 자주화와 지역경제블럭 형성 등을 통한 “아프리카 새질서 모색”이라는 새로운 흐름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하고 있는 AU의 출범은 아프리카통합이라는 정치적 의지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서 분쟁방지 및 해결, 빈곤 및 질병 퇴치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오늘날 아프리카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AU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할 것임.

□ 모로코는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단기적으로 우리의 수출이 일정규모 이상 확대되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장임.

- 그러나, EU와의 경제적 특수관계,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의 직접투자를 통한 유럽 우회수출 기지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요건을 지니고 있음.